

# 영암군민이 생활에서 체감한 2025년 10대 정책은

## 영암군 공직자, '영암 여행 원플러스 원' 등 인기와 실효성 높은 정책 선정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025년 10대 군정 정책'을 선정했다.

이번 10대 정책 선정은, 영암군 각 실과·소에서 정책 집행을 담당할 공직자들이 참여해, 군민이 생활에서 체감하고, 실효성도 높았던 것들을 뽑아 집계한 것.

10대 군정 정책 중 가장 높은 순위에는 '영암 여행 원플러스 원 사업'이 올랐다.

이 사업은 지역 관광객을 늘리는 동시에 영암 관계인구 증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영암 1회 방문에 이어 2~3회 재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혜택을 강화한 사업 설계로 비수기 지역 방문까지 활성화하는 등 생활·관계인구와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도 영암군의 올해 대표 정책으로 꼽혔다.

영암군은 기업과 단체를 찾아가는 기부 이벤트, 지역 농특산품을 중심으로 강화된 답례품 구성 등 지역과 접촉면을 넓

히는 이벤트 전략을 병행했다. 이런 노력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와 지역경제의 연결고리를 한층 강화했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영암군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는 2023년 전국 3위, 2024년 전국 4위의 모금에 이어, 2025년 12/30일 현재,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모금 증가세의 실적을 올리며 전국 선도 사례로 자리 잡았다.

'영암 울케어 통합돌봄 체계 구축'은 복지 현장에서 가장 체감도 높았던 정책으로 주목됐다.

어르신을 포함한 영암군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정비한 영암군은, 돌봄 공백은 크게 줄이고 생활 안정성은 크게 높였다.

특히, 그간 부서별로 나눠 있던 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영암형 복지 모델을 구축한 경험은 전라남도과 시·군의 선진지 벤치마킹 사례로 꾸준히 각광받고 있



다. 농업과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농정혁신과 지역순환경계가 주목을 받았다. 영암군은 계획농정과 스마트농업으로 농업의 체질을 바꾸는 한편, 지역화폐인 월출페이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사용된 돈이 지역경제 내에서 돌며 부가가치를 더하는 지역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농가소득 증대와 골목 경제 활력을 동

시에 고려한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했다는 것이 현장 공직자들의 평가다.

이 밖에도 이번 10대 정책에는 ▲안전 체험교육장 국비 확보 ▲영암형 사회적 금융 천사펀드 정착 ▲역대 최대 정부 예산 확보 1,333억 ▲시중 고분군 국가문화유산 사적 지정 등이 선정됐다. 영암/김희선 기자



## 진도군, 지역경제 3개 분야 평가 '우수' 민생경제 성과로 '특별교부세 1억 7천만 원' 확보

진도군이 군민 일상과 밀접한 경제 정책 성과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진도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단체 평가'를 비롯한 지역경제 3개 분야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1억 7천만 원과 시상금 2백만 원을 확보했다.

먼저, 진도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단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진도군은 소비쿠폰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해 군민들이 지역 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 지급'을 통해 이동이 어려운 군민도 불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 현장 중심 행정이 우수 사례로 인정됐다.

또한 진도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방 공공요금 동결과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 농축산물 가격 안정,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등 군민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25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에서도 물가안정 관리와 소상공인 지원 성과를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하고, 시상금 2백만 원을 확보했다.

진도/오재영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5년도 특별교부세 총 71억 7천만 원(약 72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별 긴급·특별한 재정 수요나 예기치 못한 재정 여건 변동 등에 충당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재원이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화순군이 그동안 지원받은 규모 역대 최대로,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

## 화순군, 2025년도 특별교부세 72억 원 확보... 역대 최대

적으로 검토해 반영된 결과이다. 분야별로는 지역현안 수요에 ▲동구리 호수공원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10억 원 ▲한천면 금전리 지방상수도 확충 5억 원 ▲화순읍 다지리 가로등 설치사업 4억 원 등 총 29억 원(6건)을 확보했다.

또한 재난안전 수요에는 ▲재해위험교량(세정교) 보수 및 보강사업 7억 원 ▲하천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후속조치 사업

5억 원 ▲용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억 원 등 총 32억 4천만 원(10건)을 확보해 재난 예방과 안전 기반 강화에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순군은 중앙부처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시책수요(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에서도 10억 3천만 원(9건)을 확보했다. 해당 인센티브는 ▲기후저탄 대용 최우수 2억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2억 원 ▲자연재난대책 추진 및 재난관리 평가 우수 4억 2천만 원 등이 포함된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많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지역 신청한 국회의원께 감사드립니다"라며, "확보한 예산이 조기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이 생활 속에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적극 실천해 '군민이 행복한 화순'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순/김종환 기자

순천시 '정원도시'를 넘어 '치유도시'라는 시정 목표 아래, 시민의 주거공간까지 정책의 범위를 확장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2026년에도 총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 다수가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동주택을 도시 차원의 치유 공간으로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순천시 공동주택은 총 184개 단지로, 이 가운데 준공 후 20년이

## 치유도시 순천, "공동주택 일상까지 치유하겠습니다"

2년 연속 37억원 투입...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속 추진

상 된 노후 단지가 122개로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주차장, 보안등, 담장, 상·하수도 같은 공용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 우려와 생활 불편이 지속 제기돼 왔다.

2026년 사업은 단지 내 도로, 보안등,

상·하수도 및 가스시설, CCTV, 소방·방범 시설, 엘리베이터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부대시설 정비와 어린이놀이터, 주민쉼터 등 일상 회복을 위한 복리시설 개선에 중점을 뒀다.

또한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시설 등 기본시설 개선도 일부 포함됐다. 공동주택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치유도시 정책을 사업 중심으로 적용한 사례다.

사업 신청은 2026년 1월 20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준공후 10년이 경과한 단지로, 기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연도 기준 2년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다. 순천/정성인 기자

장성군이 최근 장성군가족센터가 종강식 및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다고 전했다.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군민과 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댄스 동아리 '아이엘라'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1부에선 올해 활동 영상 상영

## "함께라서 빛나는 밤" 장성군 가족센터 '종강식'

군민, 관계자 등 100여 명 참석... 소통과 화합의 시간

과 '99초 릴레이', 우수 참여자 표창 등 순서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모든 참석자들이 참여하는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돼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종강식을 찾은 김한중 장성군수는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가족센터 관계자 및 참여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면서 "군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아우르는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 완도군, 마음 투자 지원 사업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 선정

### 심리 상담 지원 통해 군민 마음 건강 돌봄 강화

완도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5년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마음 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 ▲서비스 신청률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 등록 ▲예산 집행률 등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완도군은 체계적인 사업 운영과 높은 주민 참여율, 안정적인 예산 집행 등을 높이 평가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주민의 마음 건강 돌봄과 자살 예방, 정신 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비우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군민의 정신 건강 심리 상담 서비

스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며,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총 8회의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와 최대 64만 원의 상담 비용을 지원했다.

한광일 보건의료원장은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군민과 현장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의 결과이다"면서 "앞으로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군민이 마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의 심리 상담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보건의료원 정신건강팀(☎061-550-5853, 67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장선우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우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